

해양문화연구 제5호 1999년 12월

## 풍어제(豊漁祭)를 통해 본 해양민속

김 정 하\*

### 〈目 次〉

1. 바다에서의 삶과 죽음
2. 풍어제의 정신
3. 제의의 주체와 객체
4. 풍어제의 지역적 특성
5. 전통의 창조적 전승

### 1. 바다에서의 삶과 죽음

바다는 죽음과 삶이 교차하는 공간이다. 그런 극단적인 구분이 단번에 눈에 잡히지는 않더라도 죽음을 향하는 소멸과 삶을 향하는 생산의 양 극단이 공존하는 곳이 바다다. 그래서 바다에 삶의 터전을 둔 사람들은 스스로가 어떤 힘의 근원이어야 했다. 죽음의 기운은 가능한 씻어내고 물리치고, 삶의 기운은 한껏 부추기고 돌구어야 했다. 그 방법의 하나가 풍어제(豊漁祭)였다.

풍어제는 인간이 스스로를 우주의 중심에 놓고 바다의 삶을 이끌어가는 데 필수불가결한 제의였다. 그래서 항용 어민들은 이렇게 빌곤 했다.

“있는 살림, 없는 살림, 한 푼 두 푼 모아 3년만에 용왕님 전에 풍어제

\* 한국해양대 동아시아학과 조교수

를 올립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혼신의 힘을 다해 살고자 하는 열망이었다. 그래야 비로소 신도 감응하고 화답하는 것으로 그들은 믿어왔다.

풍어제는 오늘날 용왕제나 당산제 형태로 엄연하게 살아 전승되어오는 제의다. 따라서 얼마나 그 원형이 보존되어 전해지느냐를 굳이 물을 이유는 없다. 적어도 바다에 삶의 적(籍)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그 의미와 기능을 인정하는 한에서는 늘상 그렇다.

경남 삼천포시(사천시)에 전승되어오는 풍어제는 1460년 이래 무려 539년이나 되는 역사를 자랑한다. 특히 사천시 신수동(신두섬) 풍어제는 매년 정초에 길일을 택해 무당이 3일 간이나 주야로 제의를 치르는 대규모 행사이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만도 실로 대단하다.

이 글은 전국 각지에 전해지는 풍어제의 원형을 그 정신과 기능면에서 살피되, 오늘날 변용되어 계승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를 조명해보고자 욕심을 내었다. 이를 위해선 가급적 제의절차나 형식보다 삶에서 중시되는 이미지나 상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의미론적 연관성 구축에 나서야 할 것이라 본다. 즉, 의도적으로 마련된 제의보다는 평소의 삶에서 누구나 제주가 되어 신을 모시는 주술적 사고와 행위까지를 풍어제의 넓은 범위에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그래야 비로소 풍어제에서 모시는 신격과 다루는 신체(神體), 사용되는 도구의 의미망이 포착되리라 본다. 그러한 결과를 도모하기 위해 제의를 서사적 상황 내지 서사적 형태로 보는 관점을 원용하고, 제의적 요소에서 주체와 객체, 혹은 그 혼용을 서사적 요소에 대응시켜가며 살피려 한다.

## 2. 풍어제의 정신

### (1) 인간중심 의례

풍어제는 마을 사람과 선주들을 위해 벌이는, 인간이 중심이 된 의례다. 그 점은 무엇보다 의례의 기원이 인간에게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하나씩 그 예를 꼽아가며 살펴보자.

4년마다 음력 10월중 벌이는 부산 청사포 풍어제는 4백년 전의 마을전설에 기원을 두고 있다. 즉, 고기잡이를 나간 지아비를 기다리다 숨진 임씨부인을 기리는 제사에서 출발한 것이다. 마을사람들은 이에 대한 증거로 임씨부인이 죽은 자리에서 돌아난 망부송의 나이가 4백 살이라는 점을 꼽는다. 풍어제가 열리면 하루 여섯 자리가 치러지는데, 이 제의에는 마을사람들 모두가 참여하여 공동체의식을 다지고 풍어를 기원한다. 그 자리에서만은 누구나가 임씨부인의 후예가 되는 셈이다.

서해안에는 선주들이 자신들의 배와 선원의 안전과 풍어를 위해 벌이는 배연신굿, 그리고 마을사람들이 해상에서의 안전과 풍어, 협동과 화목을 기원하기 위해 공동으로 비용을 마련해 벌이는 대동굿이 있다. 그 어느편이 되든 바다와 신격, 인간이 어우러지기를 기원하되 굿을 주관하는 인간이 중심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자면 기원하는 인간의 신원을 밝혀둘 필요가 있다.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문암리 망개마을 성황제에서는 무당에게 날받이를 하면서 마을사람들 모두의 생년월일을 적어간다. 흔히 개인풍어제를 지낼 때에는 선장, 선주, 선원들의 성명, 생년월일을 써두고 행운을 빌어준다.

그래서 굿의 혜택이 인간에게 돌아감을 직접 보여주는 신물(神物)이 동원된다. 일반적인 풍어제의 형태인 당산제에서 한 절차인 '길지내림'도 그러하다. 서낭을 위한 제사가 끝나면 제상 위에 두 사람이 다가서서 백설기 한 덩어리와 수육을 한지로 싸서 꽃반 위에 올린다. 무녀는 길지를 꽃반 위에 놓고 집사 역할을 하는 이장이 술을 따라 다시 꽃반 위에 놓는다. 그러면 제상 앞에 호명된 선주가 꽃반에 돈을 바치고 술을 마신 후 무녀가 준 길지와 제물을 갖고 내려가는 것으로 길지내림이 마무리된다. 축원(1)을 받으며 길지를 내릴 때 선주는 제상앞에 나와 절을 한 후 술을 한 잔 받아먹는다.

어촌의 마을굿에서 마을전체를 위해 무당은 흔히 '대동소지'를 한다. 개

- 
- 1) 당할아버지 당할머니 당아기씨께서는/한양 후예 한씨택을 한달 두달 무사고/만신 이루어달라고 비나이다/일년 열두달 삼백육십오일/동서남북 아무라도 재수주교/동구사고 대동 막으시오/나무 해신 명신 나무대비 관세음/한양 후예 한씨택을 도와주고 살려주소

인별 소지는 없는 경우가 보통이고, 무당의 축원 특정인을 위해서보다는 역시 마을 사람 전체를 위해 길지와 복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대동길지’를 내리는 경우에는 그것을 마을 뱃기에 묶는데, 그때부터야말로 개인별로 길지를 배에 묶어도 좋다. 그래서 산에서 길지를 받고 내려올 때면 서로 먼저 가서 배에 길지를 묶으려고 저마다 걸음을 다툰다.

부정기적으로 열리는 별신굿에서는 더욱 그 절차가 거창하다. 하나의 굿거리가 끝날 때마다 ‘걸립’을 하는데, 무당은 돈을 낸 개인마다에게 축원을 해주는 것이다.

그러자면 개인은 먼저 신으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을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제주도 영등굿의 첫번째 절차인 ‘초감제’에서는 ‘새다림’이란 의식을 행한다는데, 이는 신들이 오시기 전에 인간과 장소를 깨끗이 하는 의식이다. 새다림이 시작되면 해녀 몇을 앞에 불러내어 앉히고 심방이 손에 든 푸른 댓잎과 지술로 그들의 머리를 훑어내리며 부정을 쓸어준다. 이로써 그들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다고 믿으며, 그로부터 원혼이 무사히 천도(遷度)하기를 바라는 것과 한 해 풍어가 들게 해달라는 기원을 올릴 자격을 얻는다.

## (2) 신격(神格)의 설정

흔히 초자연적 존재인 용(龍)이 바다의 신격을 대표한다. 그 이유는 물이 지닌 생명력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용은 깊은 물에 거처하면서 해난(海難)과 수해(水害), 한해(旱害)를 막고 익사자의 영혼을 관장한다고 믿어진다. 용왕을 위해 올리는 제사가 다른아닌 용왕제로, 농촌에서조차 승배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상상속의 존재가 용이지만, 아무래도 그 힘이나 권능을 한껏 발휘되는 공간은 바다다.

가급적 힘과 주력이 뛰어난 동물을 숭배대상으로 삼는다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야만 더욱 많은 사람들을 숭배자의 대열에 포괄할 수 있으리라 믿기 때문이다.

가장 평범한 풍어제인 ‘당산제(堂山祭)’에서의 가장 평범한 신격은 마을 수호신이다. 당(堂)에는 당할아버지와 당할머니가 좌정해있는데, 이들은 대개가 그 마을의 입향조(入鄕祖)들이다. 바다에서 배를 타고 조상의 묘

가 있는 선산을 지나갈 때나 영험한 당산(堂山), 용신당(龍神堂)이 보일 때, 또는 언덕 위 당산목(堂山木)에 긴 머리로 만든 달비를 걸어놓은 곳을 통과할 때는 고사밥을 던지며 풍어를 기원하기도 한다. 바닷가에서 바다에 목숨을 의지해 살면서도 산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물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의 어쩔수 없는 속성이다.

그렇다고 해서 당산신을 모시는 것이 바다를 부정하는 일은 아니다. 왜 당산신을 모시는데 대한 대답을 충남 태안군 황도 봉기풍어제에 있다. 약 5백년 전 안개 자욱한 바다에서 황도 배들이 길을 잃고 표류하고 있을 때 당산에서 불빛이 비추어 인도해주는 덕에 무사히 귀항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를 기리기 위하여 매년 정월 초이튿부터 초사흘에 걸쳐 마을사람 모두가 참여하여 1년 간의 풍어와 어선의 무사를 기원한다. 처음에는 뱀신인 '진대'를 섬겼으나 현재는 군왕장군을 중심으로 성주, 사해용왕장군, 삼불, 사해보방장군을 모신다.

서해에서는 임경업장군을 해안과 각 섬에서 당신(堂神), 혹은 고기잡이를 도와주는 어로신으로 모신다. 특히 배연신곳에서는 각 명산의 장군서낭과 함께, 배신(船神)으로 소당애기씨, 물애기씨, 이물영감, 고물영감, 영상대감, 배서낭을 모신다.

산당(山堂), 혹은 상당(上堂)이 신이 좌정한 곳이라면 하당(下堂)은 선창이나 깃별에 있다. 흔히 산촌에서 상당은 산기슭에 하당은 수구(水口)에 있는 것과 유사한 자리매김이다. 만일 이 위치를 격의 높낮이로 본다면 바다신이 육지신에 비해 낮은 처지에 있다는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신들은 서양처럼 신들의 위계가 확실하지 않을 뿐더러 산신이나 바다신 모두가 상호보족적인 존재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신격을 대하는 경우도 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돛대에 새나 나비가 날아와 앉으면 배의 정령, 또는 조상신이나 바다에서 죽은 선원의 넋이 나타난 것으로 여긴다. 그러면 배가 안전하고 선원들이 보호를 받으며 가족이 무사하리라는 길조로 여긴다.

배 자체가 신격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배의 형국을 지닌 마을에는 풍요롭고 순조로운 삶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매년 대보름에 물오리가 앉아 있는 돛대(짐대)를 세운다. 짐대에 앉은 새는 저승사자이며 마을의 수호

신이고 고기떼를 부르는 풍요의 신으로 믿는다.

당연히 배에도 신이 좌정해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이물[船首]을 다치면 어장일이 순조롭지 못하고 재해를 입는다고 믿는다. 배에는 선신이 상주하여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때문에 함부로 그 이마에 상처를 입히면 선왕이 노하여 재앙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선주에 따라서는 이러한 경우 선왕을 달래주기 위한 굿을 하는 경우도 있다.

배에 있는 신은 배선왕(선왕), 배서낭(서낭), 배성주(성주), 지왕님, 선령, 배선령 등 여러 이름을 갖고 있다. 신격에 따라 여선왕, 남선왕, 조상선왕, 애기선왕, 제석(지숙)선왕, 성주선왕, 명태선왕, 밤[栗]선왕, 돌선왕, 개선왕, 뚝선왕, 피선왕, 소선왕, 돼지선왕, 뱀선왕, 용선왕, 귀선왕, 소리나는 징선왕, 부적선왕 등 다양하다. 배서낭은 수호신이자 어로신이고 항해신으로 여겨지므로 그 영험에 따라 풍어도 되고 흉어도 된다. 길흥의 전조는 배서낭의 울음소리로 알려지는데 이를 감지하는 자는 선주나 선장이다.

그런가하면 특별한 신을 정해 모시는 경우도 있다. 제주시 건입동 본향당에서 무형문화재 71호 칠머리당굿을 할 때 모시는 “요왕해신부인”은 “도원수감찰지방관”의 아내로서, 어부와 해녀의 생업, 외국에 나간 주민들을 수호해주는 존재로 믿어진다. 또 제주도 영등신은 풍우 등 기상과 해조류, 패류 등 해녀의 채취물과 어업을 관장하는 신으로, 외래신으로 불려진다. 즉, “할망”이라 불리는 여신이며, 강남천자국 또는 외눈박이섬에서 왔다가 돌아가는 내방신(來訪神)이라는 것이다.

또한, 바닷가에 자연적으로 생겨난 자연물-예컨대 바위 등도 신격이 된다. 경남 남해군 흥현리 가천마을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를 상징하는 바위를 ‘수미록’과 ‘암미록’으로 부르며 해마다 음력 10월 23일에 ‘미록제’를 지낸다. 수미록은 남성의 성기가 발기한 모양이고 암미록은 여자가 잉태하여 배가 불러진 모양이다.

육지에서 바다로 내려온 자연물도 신격으로 섬겨진다. 경기도 강화군 서도면에서는 800년 전 바다로 떠내려온 은행나무를 모시고 있다. 이마을 사람들은 천연기념물 304호로 높이만도 24.5미터에 이르는 이나무를 중심으로 매년 1월 30일 풍어제를 치른다.

### (3) 제의절차와 기능적 측면

#### 가. 시기

풍어제의 시기는 대개 설달 그믐날, 설날, 정월 대보름날, 삼월 삼짱날, 추석 등 명절에 집중돼 있다. 또는 배를 처음 바다로 내보내는 날, 당산제를 지낼 때, 출어할 때, 흉어(凶漁)가 계속될 때, 만선(滿船)했을 때, 자주 배사고가 날 때, 선주에게 부정이 끼어 우환이 생긴다고 믿을 때, 선주나 선장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할 때 등도 풍어제가 치러지는 날이다. 간단한 풍어제는 배를 처음 만들었을 때, 혹은 배가 출어하기 전에 지내는 뱃고사로서 단지 술을 바다에 붓는 식으로 '제향(祭享)'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시기 선택은 민속의 세시풍속이나 통과 의례에서 택하는 날과 대단히 흡사하다. 그것은 기존 질서를 물리치고 새로운 질서를 맞아들이려 할 때, 혹은 의도적인 시련을 가해 새로운 기운을 북돋우려 할 때와 같은 시기인 것이다.

어촌에 나가보면 예전에는 매월 초하루나 음력 보름날, 그리고 조금 때에 맞춰 고사를 지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 나. 정기·비정기 제의

다시 구분하자면 풍어제는 정기적 제의와 비정기적 제의로 나뉘어진다. 동제(洞祭)가 주가 된 당산제는 정기적이라 할 수 있으나 별신굿 등은 부정기적이다. 마찬가지로 당산제에 부수된 뱃고사는 정기적이거나 배를 건조할 때나 출어할 때 올리는 뱃고사는 비정기적이다.

특히 두드러진 비정기적 풍어제가 별신굿이다. “뱃신굿”, “뱃손굿”, “뱃순굿”으로도 칭해지는 남해안 별신굿은 충무와 거제도의 죽림포, 수산, 양파, 구조라 등의 마을과 통영군 한산도, 사랑도, 갈도, 치리 등의 지역에서 벌이는 제의다. 마을마다 2년, 혹은 1년의 간격으로 지낸다.

동해안에서도 부산에서 휴전선에 이르는 각 어촌지역에서 풍어제를 겸해 행해지고 있다. 별신굿은 동제와 마찬가지로 지역수호신을 모시면서도 무속에서 신앙하는 여러 신들을 모시는 축제적 성격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 다. 절차와 의미

절차는 우선 순위와 포괄 범위 등 기능적 의미면에서 중요하다. 제관이 나 무당이 어디를 먼저 찾아가느냐 어디까지를 신격이 머무는 곳으로 보느냐에 따라 혜택받는 내용이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다.

서해안에서의 대동굿은 당산 굿칭의 당굿에서부터 마을 가가호호를 위해 베푸는 세경굿, 그리고 바닷가의 강변용신굿 등으로 이루어진다. 산과 바다, 마을 전체를 굿마당으로 삼는 대풍어제인 것이다.

그에 비해 배연신굿은 바다 위의 뱃굿으로 한정된 선주들의 풍어제이다.<sup>2)</sup> 뱃고사의 제의 절차는 선주집에서 조왕, 성주, 오방신 대감을 불러 제문을 드리면서 출어를 알리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신청올림’으로 시작되는 배연신굿은 ‘당산맛이’에 이어 ‘부정풀이’, ‘초부정 초감홍’으로 이어진다. 잡신들을 불러 먹이는 ‘영정물림’에 이어지는 ‘소당제석’은 육류나 생선 등으로 입을 비리게 하지 않은채 산신제석, 용궁제석, 서해용왕 제석 등을 청하여 대접하고 놀아주면서 배와 선원들을 도와달라고 축원하는 굿이다. ‘민산장군거리’에 이은 ‘대감놀이굿’은 배의 요소 요소를 담당하고 있는 가가대감과 선주집안의 대감, 바다의 용궁대감 등을 청해 대접하고 위하면서 배를 안전하게 해주고 고기를 많이 잡게 해달라고 축원한다. 이어 연희적 요소가 강한 ‘영산할아범, 영산할멈’ 대목에서는 두 사람이 서로를 찾는 놀이 끝에 용왕님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물을 바다에 넣었다가 꺼내, 가득 들어있는 고기를 배에 싣는 시늉을 하며 배치기 노래(일명 ‘에밀랑’ 노래)를 한다. 이어 ‘송거주는 굿’으로 선주와 선원에게 복을 주고 배의 안전을 기원하며 ‘다리바 용신굿’에 이은 ‘강변굿’으로 제물과 별상을 떠배에 실어 바다로 띄워보낸다.

“잠수굿”, “해녀굿”으로도 불리는 제주도 영등굿은 초감제를 행한 후 신들을 맞이하는 의식을 하고 이어서 씨드림과 지(종이)를 드리고 마지막

2) ‘배연신굿’에서의 ‘연신’이 무슨 뜻이냐에 대해 여러 이설이 있으나, 전북 고창 동호리의 경우에는 영신당의 당할머니(‘시준할머니’라고도 함)가 연신굿에서 가장 중요한 신으로 섬김을 받는다. 동리 어민 중에는 “연신굿이 아니라 영신굿”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 ‘영신’이란 아마도 배에서 신을 맞이하여 배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는 절차라고 해석해야 옳을 듯 싶다.



으로 모형배를 띄워 바다로 내보내는 것으로 끝난다. 제주도 영등굿에서 본향신 및 용왕신이나 영등신을 맞이하는 과정은 대단히 사실적이다. 땅 위에는 지전이 달린 뗏가지가 두 줄로 꽂혀 있는데, 그 사잇길이 바로 용왕길을 상징한다. 이 길은 신들이 다니는 통로이므로 돌이 있거나 더러우면 안된다고 믿어 심방은 따비 등으로 열심히 길을 닦아둔다.

‘씨드림’은 제주도 영등굿에만 있는 독특한 의식이다. 바다에 나가 좁쌀이나 콩씨를 뿌리는 이 의식은 해녀들이 장차 채취할 전복이나 소라, 고동, 미역 풍년이 들도록 기원하는 것이다. 바다에서 나는 생산물의 수확을 기원하면서 땅의 생산물을 뿌린다는 것이 얼핏 생각하기엔 모순처럼 보이지만 ‘종자’를 의미하는 바에는 땅의 생산물이나 바다의 생산물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콩씨와 좁쌀인 즉 곧 소라와 고동, 미역의 씨[種]인 것이다.

별신굿에서는 ‘부정굿’으로 마을을 정화하고 소지를 올려 마을의 앞날을 점치며, ‘골매기대’로 마을에 닥칠 미래의 길흉을 묻기도 한다. ‘조상굿’으로 조상을 섬기고 ‘성주굿’으로 가신을 모시며, ‘심청굿’으로 동네사람들의 안질을 없애달라고 기원한다. 무녀가 입에 낫동이를 물어보이는 ‘구능굿’으로는 장수를 기원해주며 ‘손님굿’에서는 마마귀신에게 곱게 물러나라고 타이른다. ‘용왕굿’으로는 물을 관장하는 용왕을 위하고 ‘거리굿’으로 잡귀들을 풀어먹인다. 그러나 무엇보다 별신굿은 마을민이 함께 즐기는 유희로서의 기능이 강하다. 축원이 끝나면 여흥이 시작되는데 무당의 춤, 판소리, 각도 민요, 잡가, 최근 유행가까지 어떤 노래든 춤이든 수용된다.

#### 라. 배서낭에 의한 암시

배에 갇들어있는 정령이라 보아야할 배서낭은 배를 타는 사람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다. 배서낭이 길흉을 미리 알리는 방식은 “우는” 것이다. 선주나 선장, 화부 등 특정인이 거리나 집안, 잠결에 배서낭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 즉시 출항을 포기한다. 또는 선내에서 황파가 닥치거나 배가 깨질 위기에 처하면 배서낭이 운다고 한다. 또는 고기가 안잡힐 것이라는 전조나 가정의 우환도 같은 방식으로 알려준다고 믿는다.

취울음 소리는 배에서 사고가 날 징조, 뱀 우는 소리는 파선하거나 고

기가 안잡힐 징조, 새 우는 소리나 물이 흐르는 소리, 혹은 바람소리는 일기가 불순하고 태풍이 불며 파도가 크게 일어날 징조다. 숨넘어가는 소리나 무너지는 소리는 가정에 우환이 있게될 징조이며 부드럽고 가락이 있는 옥 굴리는 소리는 만선이 되리라는 길보(吉報)다.

#### 마. 놀이

여기서 말하는 놀이란 단순한 유희가 아니라 종교성을 지닌 모종의 행사를 가리킨다. 따지고 보면 원시종합예술(ballad dance)에서 갈라져나온 놀이인 경우에는 넓은 의미에서의 풍어제에 해당한다.

평안남도 남포시 용강군 일대에서는 음력 정월 보름날 노래와 춤으로 엮어진 봉죽놀이를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경기도 부천 일대와 평북 정주 앞바다 창도에서 벌인 봉죽놀이는 고깃배가 바다로 떠날 때 뱃머리에서 진행한 놀이였다. 황해남북도와 경기도 연해 지방에서 벌인 풍어맞이는 만선기를 날리고 돌아오는 고기배를 맞는 환영무도회였다.

동해안 별신굿에서의 범탈놀이도 단순한 놀이라기보다 신앙성을 담은 기원의 형태로 보인다. 인간을 해치곤 하던 강한 호랑이가 포수의 총 한 방에 쓰러져 껍질이 벗겨지는 장면은 사실적이면서도 상징적이다. 끝무렵에 이르러 사람 대신 소머리를 가져가라고 뒷산에 묻는 대목에서 보듯 산군(山君)으로서 신적인 위치에 있는 호랑이에게 마을의 안녕을 비는 주술적 의례의 하나다.

서해안 배연신굿에서는 뱃동사들이 북을 치며 배치기노래를 하면서 춤을 춘다. 마지막 굿거리가 끝날 무렵에는 악사, 사제무(司祭巫), 선원들, 모든 주민들이 물보라를 받으며 달리는 배 위에서 함께 노래부르고 춤을 춘다.

매년 5월 열리는 경남 마산시의 '의창 성신대제(星辰大祭)'는 별에게 풍어와 안택을 비는 오락성 강한 무속행사의 하나다. 마산시문화원 주최로 치러지는 이 행사는 성신기원행사, 꼬시락잡이놀이, 선창절립패놀이가 주를 이룬다.

부산시 수영구 일대에 선조 25년(1592년)에 설치된 좌도수군절도사의 영을 기리는 '좌수영 어방놀이'가 있다. 어부들이 흥겹고 즐거울 때나 풍

어를 빌 때는 칭칭이소리를 하고 그물을 손질할 때는 그물깎는 노래를 부른다. 줄을 풀 때는 내왕소리를 하고 바다에서 그물을 던질 때는 사리 소리를 하며 고기를 그물에서 풀어낼 때는 가래소리를 한다.

### 3. 제의의 주체와 객체

제의를 주체가 객체를 다루는 상황이라고 보면 이는 서사적 상황과도 비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글에서의 논의방법이다. 즉, 주체는 실제작가, 내포작가, 서술자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실제작가는 글을 요청한 사람이고, 내포작가는 무당이며, 서술자는 제의 내적 상황의 주체이다. 이러한 구분을 토대로 각 풍어제의 주체와 객체를 구분해보려 한다.

#### (1) 주 체

##### 가. 선주

우선은 선주들이 풍어제의 주체로 꼽힌다. 당산제에서는 선주나 어민들이 무당과의 사이에 일정한 격식을 갖춰 '길지'를 주고 받는다. 당산제 자리에서 제의절차가 끝난 직후 꽃반을 차려놓고 길지를 받는 것 외에도 대략 오후 1시경으로 시각을 정해놓고 당에 올라가 돈을 내고 길지를 받는 식도 취할 수 있다. 즉 마치 적금을 넣고 예금통장을 받듯 내는 돈의 액수에 맞는 순서대로 3만원, 2만원, 1만원에 해당하는 길지를 받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배연신굿을 처음 청하는 사람들은 선주부인이다. 자기네들끼리 택일해주는 사람들을 찾아와 날짜를 정하고 굿을 요청하는 것이다.

또한 배에서의 배서낭을 모시는 주체는 선주나 무당, 보살(점치는 사람),도목수, 선장 등이다. 선장은 이배 저배를 타는 사람이므로 배서낭도 바꿔가며 모신다. 가장 능력있는 선장이 가장 영험있는 배서낭, 즉 늘 만선하는 배의 배서낭을 모시게 된다.

##### 나. 무당

말할 것도 없이 무당은 제의를 주관하고 서사적 진행을 이끌어가는 사

랍이다. 당산굿을 치르는 경우 무당은 뒤에서 받쳐주는 제의의 주체, 즉 마을사람들의 부추김을 받아 앞장을 선다.

특히 신내림에 의한 빙의(憑依)는 무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며, 그밖에도 무당은 소지(燒紙) 등의 방법으로 신의(神意)를 물어 인간에게 전한다. 특히 배연신굿에서 무당은 굿거리 요소 요소에서 무아지경에 빠지거나 접신(接神)하는 신비스러운 현상을 보여준다.

#### 다. 당주(堂主)

당주는 무당은 아니지만 사제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넓은 개념에서 주체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당주인 제주는 1년간 부정하지 않은 남자를 뽑아 외출을 삼가하고, 부정한 것을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않으며 풍어제가 있기까지 정결한 마음으로 근신하도록 한다. 요즘에는 이 제주역할을 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 마을굿 자체가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역으로 말하면 풍어제가 얼마나 엄격하게 신성성을 요구하느냐를 알 수 있다.

풍어제에서는 당제가 끝나고도 “3일당 논다”고 하여 3일이 지난 후에 당주만이 참석한 제의가 치러지는 경우가 많다. 이날 저녁 7시 정도에 당에 올라간 당주는 메만 진설하고 술잔을 올린다.

직접 일을 하는 사람이 부분적으로만 당주노릇을 하는 경우가 있다.

배연신굿에서는 무당이 굿을 하기 전에 먼저 선원들끼리 부정을 푼다. 선장으로 늙은 사람(“영자”)이 큰 바가지에 숯을 띄워놓고 술가지로 찍어 뿌리면서 배의 이물과 고물 사방을 돌아다닌다.<sup>3)</sup> 그리고 나서야 무당에게 “자, 뱀자님 올라오시요”하고 권하는데, 주무(主巫)를 “뱀자”, 즉 “배의 임자”라고 부르는 것도 독특하다.

풍어제에서는 남자만이 제의를 주관할 수 있다는 통념이 깨지기 일쑤다.

충남 서산의 어리굴젓 군왕제에서는 특히 가장 정결하고 부정한 곳에만 적이 없는 아낙네가 제주가 되어 굴풍년을 기원한다. 이때 마을 남정네는 물론 임신, 혹은 생리 중인 여자는 일체 참석을 하지 못하게 한다.

3) 이때 영자는 “인부정에 누린부정, 비린부정, 피부정에 상문부정, 누추한 부정이야”하고 외운다. 그러면 선원들이 “부정이야, 부정이야”를 따라 외우며 그 뒤를 쫓는다.

제주도 영등곶의 경우 선주의 부인이나 해녀들이 중심이 된다. 심방은 곶장에서 쏘팔씨들을 바다에 뿌린다. 이는 해산물 수확의 풍흉을 점치는 의식으로 이 대목에서 해녀들은 대단히 긴장을 한다. 자신들의 일년 바다 농사가 그에 달려있다고 믿는 탓이다. 또한 곶이 끝나갈 무렵이면 해녀들은 아무말도 하지않고 빠른 손놀림으로 각자 필요한 수만큼의 지를 만들어 바다가로 나가 서선 그것을 바다에 던진 후 고개숙여 기원을 시작한다.

#### 마. 개인

실은 개인들도 제의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금기가 소극적인 주술이며 그것을 지키는 행위 역시 작은 규모나마 제의의 형태를 이룬다.

어부들은 흔히 출어에 앞서 부부행위를 하지 않는다거나 머리카락 손톱을 깎지 않는다거나 휘파람을 불지 않는다거나 손을 흔들지 않는 금기(禁忌)를 지킨다. 이 경우의 개인도 무당이나 당주(제주)와 같은 행동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2) 객 체

#### 가. 바다신

객체로서의 바다신이라면 용왕이라고 믿어지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특히 「심청전」에서 인당수로 불려진 백령도 서북방향 8킬로미터 지점처럼 삼각파도가 치고 소용돌이가 일어나 배가 자주 침몰하는 곳에 신령이 있다고 믿어왔다.

호랑이가 섬겨지는 경우도 있다. 뱃머리에 호랑이를, 배꼬리에 독수리나 봉황을 그려넣는 풍습은 아마도 중국에서 유래한 듯 싶다. 다만 기(旗) 중에는 호랑이를 그린 호(虎)서낭기가 있다. 그러나 호랑이 형상으로 만든 유람선을 한강에 띄울 때 한바탕 논란이 일어났듯 호랑이는 물과 상극이라 하여 꺼리는 경향도 적지 않다.

태안군 안면읍 황도리에서는 당산으로 뱀을 섬겼다. 그런데 40여년 전 당집에 걸린 뱀그림을 청년들이 불태우려 하자 다른 곳은 타는데 유독 뱀이 그려진 부분은 더욱 선명해지더라는 얘기가 전해온다.

배연신굿을 하는 연평도 등지의 당에는 임경업 장군 화상을 걸어놓고

섬겼으나 화상이 없는 곳에서는 나무말뚝에 도포를 입혀 임장군상으로 삼았다. 더불어 그 옆에는 나무말뚝에 빨간 치마의 노랑 저고리를 입힌 임장군부인상을 안치해놓고 함께 섬기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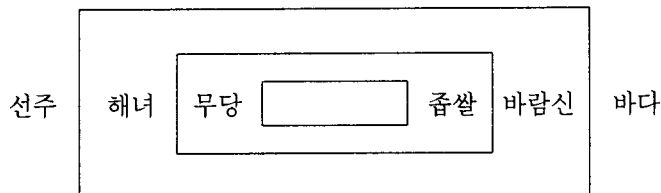
풍어제에서는 성(性)을 신성한 객체로 삼아 암과 수의 결합을 제의절차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문암리 망개마을 성황제는 마을 앞 백사당에 임시로 만든 제당에 수서낭과 암서낭을 모시는 의식으로 시작된다. 먼저 무당이 수서낭에게 가서 폐백을 하고 제를 올리고 무녀와 제관, 마을주민들은 북쪽에 떨어진 암서낭으로 향한다. 미리 남근 3개를 바쳤던 암서낭에 대해 다시 폐백을 올리는 절차를 치른 다음 새로 깎은 남근 1개를 더 바친다. 해가 뜨기 전 임시제당으로 돌아와 수서낭과 암서낭을 합배시킨 후에야 3일 간의 풍어제에 들어간다. 풍어제 외에도 정월 초사흘날마다 마을 뒷산에 있는 수서낭과 암서낭에 성황제를 올린다.

제주도 영등굿은 바람신인 영등신을 위하여 행하는 굿이다. 바람신이 하늘로 올가는 음력 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굿이 벌어지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그 절차나 내용으로 보면 서사론에서의 내포독자(implied author)에 해당하는 객체는 바람신인지 모르나 실제독자, 즉 풍어제의 실제적 객체는 바다이다. 풍어제인 즉 해산물의 풍년과 풍어, 그리고 바다에서의 안전을 기원하는 풍년굿이기 때문이다.

이를 그림으로 그려보이면 다음과 같다.



#### 나. 배(배서낭)

앞에서 배 자체를 신체(神體)로 여기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고대로부

터 배는 이계(異界)로 영혼을 실어나르는 운송수단으로 여겨졌다. 배 만드는 나무를 신성시하는 것도 것처럼 배를 신성시하는 관념을 보여준다. 배를 만들 때는 집에서 쓰던 나무나 말라죽은 나무는 쓰지 않으며, 역으로 배를 만들었던 나무는 집안의 용재(用材)로 쓰지않고 뿔감으로만 쓴다.

그러므로 배의 신인 배서낭은 선주의 현몽에 의해 모셔지는 경우가 많다. 배가 조성되면 거의 꿈에 배서낭이 나타난다. 그런데 건조된 배에서 3일을 자도 배서낭이 나타나지 않으면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보살)을 불러다가 굿을 하거나 생기복덕을 보고 점괘를 내리게 한다.

배서낭을 정할 때 배의 모양을 참조하는 것은 배 자체를 신체(神體)로 여기기 때문이다. 즉, 배가 뾰족하게 만들어지면 도목수의 판단에 의해 남서낭을 모시고, 배가 평평하고 배[腹]가 부르면 여서낭을 모시게 하는 것이다. 배의 이름도 배서낭을 정하는 주요전제가 된다. 배의 이름이 여자이름이면 남서낭을 모시게 하고 남자이름이면 여서낭을 모시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충남지방 민속에 등장하는 ‘헛배’에 대한 속신에서 보면 때로는 배가 재앙의 상징이기도 하다. 즉, 도깨비불이 반짝이는 헛배가 나타나면 흉어가 든다는 것이다.

#### 다. 제물·제구(祭具)

##### a. 제물

풍어제에서는 제상에 제물을 차리기도 하고 배를 타고 나가 바다에서 직접 용왕이나 물에 빠져죽은 혼령에게 제물을 바치기도 한다.

굿청이 정해지고 제단이 마련되면 제단에 흰종이를 깔고 제단 뒤쪽에 지화(紙花)를 놓는다. 지화의 종류는 여러가지로, 연봉, 연화, 밥꽃, 강화, 덩불국화, 은박, 설중화, 오색등화, 불봉화 등이 있다. 굿청 오른쪽에는 오색으로 단장한 용선을 매달고 외쪽에는 초록등과탐을 매단다. 굿청 바깥에는 잎이 붉은 생대나무에 한지를 오려붙인 신간을 세우고 그 옆에 등을 단다.

당산(堂山)에서의 차림에서 중요한 것은 많은 경우 5개나 차리는 제상(祭床)이다. 이는 대개 3대에 걸친 가족처럼 구성된 신격의 수에 맞춰 차리는 상이다. 제물차림이 끝나면 삼배(三盃)를 올리고 부정을 치며 계속

절을 한다. 부정치는 그릇에는 고추와 숯이 각각 3개씩 들어있다.

배연신굿에서의 제물로는 떡과 술이 풍부한 데 비해 다른 제물은 소략하다. 떡시루에는 백설기가 4~5개, 팔고물 시루떡도 3개 정도 마련되며 그밖에 인절미도 준비된다.

그런가하면 뱃고사에서서의 제물은 메, 시루떡, 명태, 돼지머리(소머리), 생선, 밥, 과일, 나물, 술 등이다. 제물은 대개 이물, 배선왕, 한판, 선장실, 기관장실, 어망을 잡아당기는 곳, 고기창고, 고물영감 등에 마른 짚을 깔고 차린다. 장어나 닭, 염소고기, 송어 같은 고기는 제찬으로 올리지 않으며 짝을 맞추지 않고 홀수로 차린다. 그물 근처에 차려진 제상의 제물은 용왕에게 헌식하고 고물 근처에 차려진 제상의 제물은 잡신에게 바친다. 예전에는 살아있는 돼지를 직접 바다신에게 바쳤으나 요즘에는 대개 돼지머리만 바친다. 돼지머리에 돈과 쌀을 채워 창호지에 싸서 어장인 바다에 나가 어망을 잡아당기는 뱃전쪽 바다 용신에게 던지는 것이다.

용왕에게 바치는 제물에는 고기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 불문물이다. 이는 고기가 용왕의 수하존제라는 생각에서인데, 대체로 밥, 떡, 과일, 달걀, 술 등을 바친다. 특히 삶은 달걀은 통닭을 상징하는 물건이다.

하당제에서의 상차림도 당산제와 유사하다. 하당굿이 끝나면 밤 열두시 경을 전후하여 ‘허살맥이’죽을 당 주위에 뿌려놓는다.

#### b. 기(旗)

풍어제에 쓰이는 기로는 “남무대성인로왕보살(南無大聖引路王菩薩)”이라 쓴 삼신번기(三神幡旗)와 오왕번기(五王幡旗), 시왕번기(十王幡旗)가 있다. 부처님의 명호가 쓰인 기를 사용하는 것은 불교와 무교가 혼합되었음을 의미한다.

부산시 수영만 좌수영어방놀이에서 쓰이는 기에는 ‘좌수영어방’이라는 글씨를 쓰며 이밖에도 풍어기와 봉황기도 사용한다. 풍어기는 3미터 쯤 되는 죽간에 위로부터 길이 2.5미터 쯤되는 백색, 황색, 청색, 적색의 기포가 달려있다. 봉황기는 죽간 위에 황색포를 달아 만들며, 대체로 만선이 되어 돌아올 때 단다.

당산제에서는 당으로 갈때 맨앞에 횃불이 나서고 그 뒤를 제물, 당주,



풍장뱃기, 선주(연령순)의 순으로 따른다. 당에 도착해서는 제물을 진설하고 풍장을 올리며 뱃기는 당앞의 차일에 일렬로 묶는다. 무녀와 이장은 신목(神木)에 예단을 걸어준다.

당산제가 끝나면 산을 내려가 하당(下堂)으로 향한다. 맨앞에 이장과 무당이 서고 그 뒤를 농악과 대동뱃기 11개가 따른다. 당산으로 올라올 때는 이장과 무당 뒤, 앞쪽에 섰던 기가 내려갈 때는 맨뒤에 서는 것도 시사적이다. 이를 “서낭각시가 타고 내려간다”고 한다. 하당으로 내려가는 중간에 생쌀과 한지로 덮은 함지에 뱃기를 세우고 무당이 나서서 헌작(獻爵) 삼배를 한 후 술을 바닥에 뿌린다. 말하자면 서낭각시가 마을 곳곳에 축복을 내리는 모습을 현현(顯現)해 보여주는 것이다.

하당제에서는 선창가에 차려진 임시제당에 제물을 차리고 기와 함께 꽃반을 마련하는데, 기는 연령순으로 꽃지만 현재는 마을을 상징하는 뱃기만을 꽃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는 선수, 또는 선산(先山)을 보고 뱃머리에 오색기, 삼색기의 오방기와 돛을 그린 고사기, 그리고 “축대어(祝大漁)”라고 쓴 풍어기를 대나무에 달아 꽃는다. 대나무는 속이 비어 소리가 나고 꺾여지지 않으며 사시사철 푸른 기운이 있어 귀신을 쫓는다고 믿는다.

삼천포시(현재의 사천시)에서는 마지막날 용왕제를 올리고 난 후, 성주기를 바다에 적시는 것으로 풍어제를 마감한다. 이때 먼저 바닷물에 배이름이 새겨진 기(旗)를 적시는 사람이 일년 내내 복을 받는다고 믿어 저마다 사력을 다해 걸음을 다투는데, 풍어제 기간 동안 보여준 화려한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대단히 경쟁적이다.

### c. 꽃

배연신곳에 쓰이는 서리화나 봉죽 등 큰 규모의 꽃장식과 서낭기, 호기, 장군기, 물기, 오색의 뱃기 등 화려한 장식도 눈여겨볼 만하다.

### d. 무 구

무구(巫具)로는 삼지창, 장군칼, 신장칼, 칠성검, 명도, 방울, 부채 등 8가지가 주로 쓰이며, 장구, 징, 태징, 뽕과리, 제금, 대금 등의 악기가 사용

된다. 무신도로는 임경업장군, 최영장군, 병마장군, 설인장군, 서낭, 일월성신, 상통지리처문, 산신, 부근, 용궁, 감응, 영산, 물에기씨 등이 그려진 그림이 쓰인다.

#### e. 등

영등굿에 대해서는 「동국여지승람」과 「동국세시기」에 ‘영등굿’, ‘말뛰기놀이’굿이라는 이름으로 설명되어 있다. 이 기록은 나무장대와 등불, 색채비단이 제구(祭具)로 쓰임을 일러주고 있다.

이월 초하룻날 제주도 귀덕, 김녕, 애월지방에서는 열 두개의 나무장대를 세우고 신을 맞아서 제신을 즐겁게 하는데, 긴 나무장대 끝을 색채비단으로 꾸며서 ‘말뛰기놀이’를 한다. 이 대 끝에 밤에는 등불을 매달아 커므로 이 제를 ‘영등굿’이라 하는데, 이월 초하루에 시작하여 보름날에 마친다.

요즘에 풍어제에 쓰이는 등불은 오색의 종이술을 단 학등, 수박등, 연등, 호개등, 초롱등 등이 있다.

#### f. 배

배는 이승을 넘나드는 운송수단이다. 제주도 영등굿 마지막 대목에서는 신이 배를 타고 떠나는 것이다. 심방이 띄우는 작은 배를 타고 제자리로 돌아감으로써 인간은 신들과의 화합을 거쳐 큰 축복을 받았으므로, 이제 다시 한해를 더욱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다. 이 경우의 배는 이계(異界)를 넘나드는 의미를 지닌 물건으로 보아야 한다.

#### g. 음악

별신굿을 모두 열거하기는 어려운 터라 동해안 별신굿에 한정하여 음악을 살펴보자.

동해안에서는 무속음악을 ‘어사위조 음악’이라 부른다. 이 음악은 어려우면서도 구성진 것이 특징인데, 이 무가를 부르던 사람은 창을 쉽게 배워도 그 역은 어렵다고 한다. 또 ‘산성음’이라 부르는 범패성 염불이 있는데, 이는 물에서 노는 물고기의 몸놀림을 흉내낸 곡으로 무가에서 높은 수준으로 꼽고 있다.

무속음악 장단에는 푸너리 장단, 드렁갱이 장단, 제막수 초장, 2장, 3장이 있는데, 굿거리마다에 따라 장단이 바뀌고 달라진다. 굿을 시작할 때는 드렁갱이 장단을 치고 초장, 2장, 3장이 되면 자진모리로 해서 서악을 마치고 부정굿으로 들어간다. 특히 개인을 위해 벌이는 오구굿에서는 쯔시개 드렁갱이를 쳐서 금오, 푸너리로, 다시 푸너리를 치고 쯔시개를 받아 드렁갱이를 쳐올려 2장, 3장, 4장, 막장이 다 되면 자진모리로 마친다. 그리곤 유가족을 울리던 망령이 사라질 때 쯔에는 도장 장단이 나와서 초장, 2장, 3장의 순으로 초망자굿을 마친다. 이 외에도 삼오동, 두나석이라는 장단과 거랑산 박자라고 하는 퇴산자춤 장단도 있다. 이 거랑산 박자는 징을 때려 징의 박자를 살리면서도 긴 가락을 겹쳐간다.

#### h. 춤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동해안 별신굿을 예로 들면, 동해안 별신굿에서 추어지는 춤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특히 연풍대춤, 달넘기춤, 퇴산자춤이 특히 유명하다. 연풍대춤은 무당 여러 명이 나와 합주와 합창을 할 때 둘이서 서로 돌면서 등과 배를 맞추는 춤인데, 이를 “마주보고 아유짚다”고 한다. 달넘기춤은 종이칼을 양 손에 들고 휘저으면서 추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퇴산자춤은 부산 동래에 사는 동해안 별신굿 전수자 김석출과 김재출, 두 형제가 이어오던 것으로 현재는 김용택(남·14세)가 전수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동해안 별신굿은 오락적이면서도 예술적이다. 화려한 무당 복장을 하고 부채와 손수건을 가볍게 들거나 때로는 신칼을 느리고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은 보는 사람을 매료시키기에 족하다.

#### 마. 주술·점복(占卜) 도구

앞서 금기의 시행과 마찬가지로 주술의 시행 역시 제의적 절차로 볼 수 있다.

서해안에서 출어시(出漁時)에 불을 붙여 배 구석구석을 쓸어주는 도구를 ‘불전’이라 하면 배를 쓰는 행위는 ‘불가시’라고도 한다. 이는 부정이나 재앙을 물리치고 고기를 몰아다주는 행위라고 믿는다.

불전은 주로 짚단, 고추나무썰, 쑥대, 또는 참깨다발을 사용하는데 이 중에서도 깻대가 많이 사용된다. 말할 것도 없이 이는 불의 정화력에 기대는 탓이며, 깻대가 사용되는 까닭은 잘 타고 냄새가 좋으며 깨알들이 터질 때 나는 소리나 모양이 귀신을 쫓고 순하게 열리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다. 또 줄기 하나가 터질 때마다 수없이 많은 깨가 쏟아져나오듯 다산과 풍요도 기원할 수 있다고 믿는다. 깻대를 다발로 묶어 불을 붙여 돌리며 고물[船尾]까지 와서 십자로 합친 다음 축원<sup>4)</sup>의 말을 하면서 바다에 던져 띄운다. 불전이 잘 타면서 떠내려가면 운수대통하고 만선(滿船) 하리라고 믿어도 좋다.

이밖에도 부정슬기에는 소금과 연기, 물 묻힌 숨이 사용되기도 하며 배서냥이 울때면 소금이나 쌀을 뿌린다. 부패를 막아주는 소금의 속성과 소금이나 쌀의 흰빛이 부정을 물리쳐준다고 믿는 것이다.

흔히 처녀귀신을 모신 해낭당(海娘堂)에는 나무남근을 바치는데, 이 물건이 억울하게 한을 안고 죽은 처녀를 위로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믿는다. 반드시 오리나무로 깎아야 하는 나무남근은 7, 8명의 제관 중 한 사람이 만들며, 절대로 남근을 깎는다고 말해서도 안되고 누구에게 미리 보여줘서도 안된다. 이 남근은 진설하면서 폐백과 함께 암서낭 바위에 있는 구멍에 꽂아두고 해마다 3개씩 바꾼다. 풍어제에 쓰였던 남근을 갖고 있으면 재물이 불어나고 집안이 태평하다 하여 제사가 끝나면 모두 없어지는 것이 통례다.

그처럼 성(性)과 음양의 원리를 원용한 예는 얼마든지 있다. 황파가 몰아쳐 피선을 할 때면 뱃머리가 여자의 음부 모양으로 생긴 골짜기를 향하게해야 한다고 믿으며 배에 물이 새면 초경 개짐으로 막아주면 안전하다는 믿음도 있다. 또 고기가 안잡히는 흉어(凶漁)가 계속되면 이물을 깎아가지고 와서 배서낭 곁에 모셔두면 고기가 잘 잡힌다고도 한다.

그런가 하면 당산제 뒷풀이에서 줄다리기에 사용한 줄을 배에 엮어두면 고기가 잘 잡힌다고 믿는다. 또는 초상난 집에 갔다 온 사람이 배에 오르면 재수가 있다거나, 상복만 배에 실어도 좋다는 믿음도 있다. 그런

4) 모든 잡귀, 액살, 산부정 다 물러가고 고기떼 물러오라/물 묻은 쪽박에 깨가 잔뜩 들어붙듯/고기 많이 잡혀라, 헛세, 헛세, 헛세

믿음에서 관을 들었던 삼줄을 어망에 쓰거나 선수의 살대에 걸어놓기도 한다. 또는 묘앞에 차려던 제찬을 어장에 뿌려 만선을 기원하기도 한다. 뱃길이 풀리지 않고 고기가 잡하지 않는 일이 계속되면 바다에서 죽은 원혼을 위해 새옷을 지어 불사르는 일도 있다.

이처럼 주술적 행위와 관련된 물건들은 성(性)이나 죽음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다산(多産)과 풍요(豊饒)를 가져다주리라 믿는다. 이는 성이 가진 생생력(生生力), 죽음을 넘어선 다음 단계로 재생이 일어날 것을 바라는 마음일 것이라 생각한다.

배에서는 여자, 원숭이, 뱀, 닭을 재수가 없는 존재로 본다. 원숭이는 재주를 잘 넘어 배가 전복되는 모습을 연상케 하며, 닭은 배와 상극이라 본다. 깨지는 달걀이나 바가지는 신고 출항하지 않는다. 그밖에 둥근 모양의 해석(海石)이나 큰 소리를 내는 징처럼 의미를 알기 어려운 물건도 적지 않다.

항해중 태풍과 풍랑을 만나거나 상어떼가 나타나거나 불길한 꿈을 꾸거나 선원에게 우환이 있으면 쌀이나 볶은 옥곡을 바다에 뿌려 재앙을 물리친다. 옥곡대신 미영씨, 파(마늘), 소금, 고춧가루, 재(진흙)을 뿌리기도 한다.

배연신곳에서는 무당이 물동이에 올라가 춤을 추며 가장 큰 조기를 물동이에 넣는다. 그러면 어부들은 그 머리가 향하는 방향에 고기떼가 몰릴 것임을 알아본다.

### (3) 주·객 혼용(混融)

그러나 풍어제에서는 주체와 객체가 혼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제의를 요청하고 주관하는 인간과 초월적 신격이 하나가 됨을 말하는데, 실은 모든 제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도달점이 이러한 상태라고도 할 수 있다.

#### 가. 용꼬리 따기

경북 영주시에 전해오는 '용꼬리 따기'에서는 용모양의 천과 비늘을 단 4백여 명의 연희자가 미리 제작된 용 안에 들어가 한바탕 놀이를 벌인다. 그들은 “용을 노는” 것, 즉 “신을 노는 것”이다.

#### 나. 소 지(燒紙)

당산제에서도 비손과 축원이 끝나면 4장의 소지를 올리는데, 이 4장은 당과 산신, 부락의 대동소지, 바다의 용왕소지를 의미한다. 말하자면 인간이 마을신과 해신, 산신들과 더불어 어우러져 살기를 축원하는 것이다.

#### 다. 배서낭

선원이 배에서 내릴 때는 자기가 갖고 있던 물건을 먼저 바다에 내려 놓고 만약 배가 깨져 탈출할 때도 먼저 널판지 위에 선왕을 모신 후에 내려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

바다에서 만난 시신을 거두어주지 않을 경우 재난을 당한다는 사고도 마찬가지다. 물에 빠져 죽은 시신으로서 더구나 배를 따라 오는 시신이면 당연히 바다와 하나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영등굿에서도 해녀와 신격(神格)이, 선주와 바다가 하나가 되는 경지를 추구한다.

#### 라. 배연신굿에서의 옷입기

지방에 따라서는 배연신굿에서, 사공이 먼저 무복(巫服)을 입고 절을 하고는 춤을 추고, 다음에는 선주가 그옷을 입고 절을 하고 춤을 춘다. 뱃동사들까지 분향을 하고 재배를 한 후에야 무당이 들어와 옷을 입고 춤을 춘다.

## 4. 풍어제의 지역적 특성

### (1) 생산물

충남 서산의 간월도에서는 ‘굴부르기 군왕제’라는 제의를 지낸다. 조선 시대 무학대사가 이태조에게 맛보인 후 진상품이 되었다는 서산 어리굴젓은 고추가루가 속살까지 배어들기로 유명하다.

### (2) 생산주체 및 풍토

제주도에서 치르는 영등굿은 해녀들이 주로 어업에 나서는 점, 그리고

바람이 많은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과 무관치 않다.

### (3) 역 사

웅진 지방에서는 ‘배연신굿’의 유래가 임경업장군 전설과 연결돼 있다. 임경업장군이 병사를 거느리고 연평도로 건너갈 때, 굶주리고 지친 병사들을 먹일 식량이 부족했다. 그러자 장군이 병사들을 시켜 산에 가서 뽕로쇠 나무(가시나무의 일종)를 베어오라 해서 물골에다 세워놓고 주문을 외웠다. 그러자 조기들이 이 나무에 하얗게 걸려들어 그 고기로 병사들을 배불리 먹이고 뺨숨이란 곳을 건너갔다.

### (4) 문화적 배경

경남 통영에 전해오는 남해안 별신굿은 현재 중무형문화재 제82-라호로 지정되어 있거니와, 예술성이 대단히 높은 풍어제로 유명하다. 이는 조선조 역대로 삼도수군통제영이 있던 이 지역의 음악과 춤이 크게 성행했던 것에서 연원을 찾을 수 있고, 어업이 성한 만큼 익사자를 위한 굿도 번다하여 굿에서의 유희성이 다듬어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더구나 남해안별신굿을 이어내린 정영만의 가계가 세습무였던 덕에 전통적 무가(巫歌), 무악(巫樂), 무무(巫舞)가 고스란히 전해진 탓으로 볼 수 있다.

## 5. 전통의 창조적 계승

위에서 보듯 풍어제는 얼마든지 그 적용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민중적, 주술적, 연희적 제의다. 그 주체나 객체는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융합될 수도 있다. 따라서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그 양식과 절차, 내용면에서의 변화나 응용도 무궁무진한 ‘열려있는 제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풍어제에도 원칙은 있다. 즉, 어떤 특정인의 작위적 해석에 의한 변화는 부정을 불러오고 재앙을 초래한다고 믿는 것이다. 이를 기층민중의 집단무의식에 비추어 나름대로 지켜온 합당한 이치를 거스르

는 방식이 위험하다는 뜻으로 새길 수 있다. 재력이 있다하여 함부로 남의 마을 전통을 바꿀 수는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적절한 예가 있다.

강원도 강릉시 상동면 안진 2리 해낭당은 지금부터 5백년 전에 생겼다고 한다. 당시 이곳에 부임한 강릉부사 이씨가 기생들을 데리고 놀다가 나무에 그네를 뛰던 해랑이라는 기생 하나가 벼랑 아래 바다에 떨어져 죽었다. 그래서 당을 짓고 제사를 지내며 남근을 바치기 시작했던 것인데, 도중에 변화가 있었다.

지금부터 60년 전 이천오라는 이장의 부인에게 해랑신 혼령이 들어와선 “내가 김부대신과 결혼을 하겠다”고 졸랐다. 병세가 악화되어 죽을 지경이 되자 어쩔 수 없이 “김대부지신위”라는 위패를 만들어 사당에 바치고 결혼의례를 지내자 이장부인의 병이 나았다. 부군이 정해졌으므로 이후로는 남근을 깎아바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얼마쯤 뒤에 타향인 울진에서 온 후릿배선주가 그 근처에서 고기를 많이 잡았다며 호기를 부렸다. 해낭당에 소를 잡아 바치고 그동안 금지되었던 남근을 만들어 매달았던 것이다. 그랬더니 제를 마치고 당에서 내려오던 사람이 피를 쏟으며 즉사해버렸다. 엄연한 남편이 해낭에게 간음을 시킨 셈이 되고 만 것이다.

이는 전통관념이 강조된 일화라 할 수 있으나 풍어제는 우선 그 성격부터가 실로 다양하게 변화한다. 근래에는 배서낭이 불상 또는 염주나 십자가 등 변형된 대상으로 섬겨지는 예가 그것이다. 믿음의 대상을 광범위하게 정하던 범신론적 전통을 이어온 풍어제에는 우리 서민들의 염원이 반영되어 있다.

이처럼 민주적이면서도 민중적이고 자연친화적이면서도 생산적인 제의가 풍어제다. 더구나 그것은 공동체적 정서의 회복이 절실한 오늘날에는 더욱 창조적으로 계승되어야 할 문화인 것이다.